



## 미 증시, 국채 입찰을 앞둔 숨고르기 장세로 마감

### 미국 증시 리뷰

6일(월) 미국 증시는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은 유효한 가운데 이번주 미국채 입찰을 앞두고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연준위원 발언 경계심리 등에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강보합 마감. (다우 +0.1%, S&P500 +0.18%, 나스닥 +0.3%)

연준이 발표한 3분기 미국고위대출책임자 의견조사(SLOOS)에서 신용여건이 긴축되고 있음을 확인. 은행의 35.6%는 3분기 들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신용 기준을 강화, 62.7%는 2분기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 부동산관련 대출에서는 은행의 60%가 3분기 주택모기지 수요가 다소 또는 상당히 감소했다고 밝히며 2분기 응답비율 43%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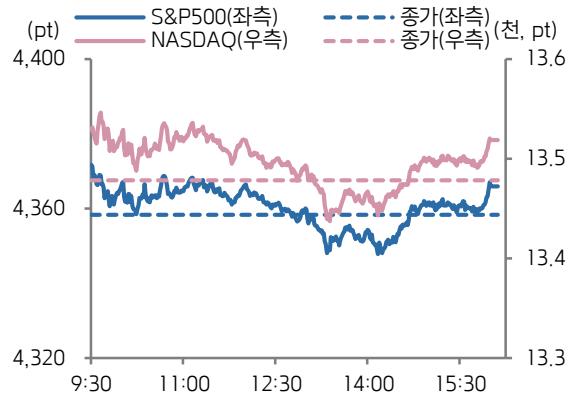
리사 쿡 연준 이사는 신용 긴축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언급. “금융시스템은 2000년대 중반 때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있다”며 가계 부채의 대부분은 신용 여력이 크거나 상당한 주택 지분을 가진 이들이 보유한 것이며, 기업의 부채도 높은 수준이지만, 탄탄한 수익 덕에 기업들은 부채를 갚을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9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인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회동할 예정이라고 보도. 미 재무부는 중국의 비시장적 도구의 대규모 사용, 시장 접근 장벽, 중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강압적 행동 등 중국 정부의 불공정 경제 관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비롯한 금융완화 정책 수정의 핵심 조건인 2% 물가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 내년에 올해에 이어 높은 임금인상이 실현될지가 관건이며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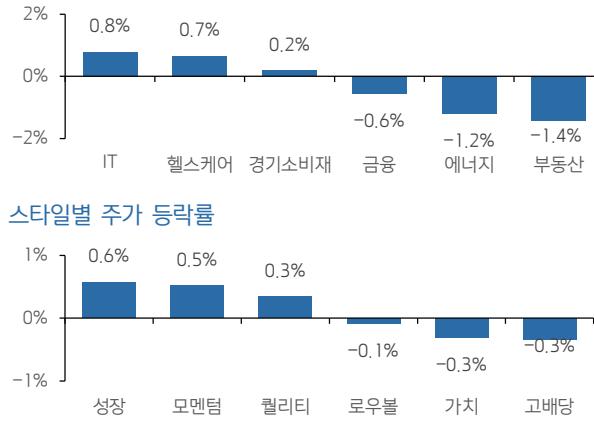
업종별로 IT(+0.8%), 헬스케어(+0.7%), 경기소비재(+0.2%) 강세, 부동산(-1.4%), 에너지(-1.2%), 금융(-0.6%) 약세. 애플(1.46%), 알파벳(0.89%), 아마존(0.82%), 메타(0.38%) 등 빅테크 대부분 강세. 테슬라(-0.31%)는 모델 Y를 생산하고 있는 베를린 공장에서 모든 차체 하부가 일체형인 25,000달러의 저가형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라고 보도한 후 강세. 그러나 독일 내 노조결성 움직임에 독일 공장의 약 1만 1000명의 직원에 대해 11월부터 임금을 4% 인상한다고 밝힌 영향으로 하락 전환.

###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02.37	+5.66%	USD/KRW	1,297.77	-1.84%
코스피 200	334.16	+5%	달러 지수	105.28	+0.25%
코스닥	839.45	+7.34%	EUR/USD	1.07	+0.02%
코스닥 150	1,363.22	+12.12%	USD/CNH	7.28	+0.01%
S&P500	4,365.98	+0.18%	USD/JPY	150.04	-0.02%
NASDAQ	13,518.78	+0.3%	채권시장		
다우	34,095.86	+0.1%	국고채 3년	3.880	-6.5bp
VIX	14.89	-0.13%	국고채 10년	4.057	-4.3bp
러셀 2000	1,737.94	-1.29%	미국 국채 2년	4.935	+9.6bp
필라. 반도체	3,444.89	-0.28%	미국 국채 10년	4.643	+7.1bp
다우 운송	14,502.97	-0.07%	미국 국채 30년	4.809	+4.2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158.64	-0.38%	WTI	80.82	+0.39%
MSCI 전세계 지수	662.77	+1.18%	브렌트유	85.21	+0.38%
MSCI DM 지수	2,883.80	+1.1%	금	1988.6	-0.53%
MSCI EM 지수	948.26	+1.9%	은	23.23	-0.22%
MSCI 한국 ETF	62.68	+5.04%	구리	371.9	+1.0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5.04%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81%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42%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97.5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체크 사항

1. 전일 폭등에 따른 단기 차익실현 물량 출회 여부
2. 외국인과 기관의 솟 커버링 매수세 추가 유입 여부
3. 이차전지, 바이오 등 성장주들의 일중 주가 및 수급 변동성 확대 가능성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0 월말까지만 해도 고금리, 전쟁, 실적 시즌 불안 등 대내외 악재들이 중첩됨에 따라 패닉셀링 장세가 수시로 출현했던 주식시장은 11 월 FOMC 를 기점으로 매크로상 위험선호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 지난주에 주가, 금리, 환율 등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빠르게 변화한 만큼, 이번주에는 대외적으로 숨고르기 성격의 되돌림 압력이 중간중간 발생할 소지가 있음. 그러나 한국 증시는 대외 이벤트보다 공매도 금지라는 고유의 수급 이벤트가 국내 증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면에 놓여있을 것으로 판단.

전일 폭등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간 기준으로 코스피(+5.7%, 역대 46 위), 코스피 200(+5.0%, 역대 82 위), 코스닥(+7.3%, 역대 16 위)의 상승률은 국내 역사상 손꼽힐 만한 성과를 기록. 이보다 더 눈에 띄는 점은 코스닥 150(+12.1%)의 주가 상승률이 역대 1 위를 경신했다는 것(이전 상승률은 2020년 3 월 20 일 +10.1). LG 에너지솔루션(+22.8%), 에코프로비엠(+30.0%), 에코프로(+30.0%) 등 이차전지주를 중심으로 사실상 양시장의 폭등세를 견인했던 순매수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점도 특징적인 부분.

이들의 순매수가 급증한 것은 솟커버링(+기존 솟 포지션에 대한 해지 포지션 구축)의 성격이 짙었던 것으로 판단. 연초 이후 코스피 공매도 거래 금액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비중은 각각 71%, 28%, 코스닥에서는 각각 62%, 36%에 달했기 때문. 주말 중 발표된 대책이고 금요일 미 증시 강세를 감안 했을 때, 솟 커버링과 추세 추종 매수세가 한데 어우러지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일 만 했던 것은 맞음. 하지만 시가총액 최상위주들이 상한가를 연출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패닉 바잉 수준의 과도한 급등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 공매도 금지를 놓고 “글로벌 스탠다드 미부합 vs 특정 주체들에 대한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등의 논란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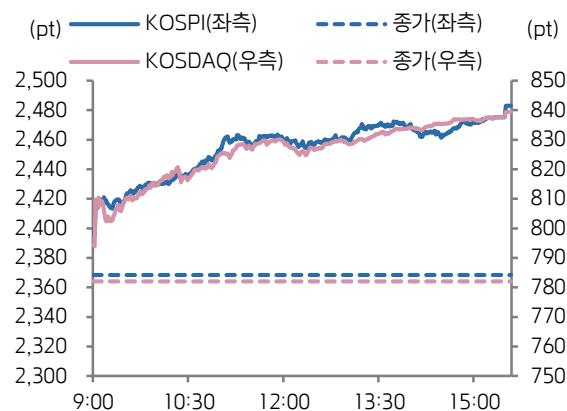
현재 연준 긴축, 미국 지표, 시장금리 향방 등 매크로 이벤트보다 “수급” 그 자체가 국내증시의 메인 테마로 형성됐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움. 향후 시장참여자들의 대응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고민이 반영될 것으로 판단.

먼저, “금일부터라도 추격 매수를 해야 하느냐 vs 과매수로 인한 충분한 주가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를 둘러싼 선택의 문제에 관한 것임. 수급 논리가 유효한 상황인 만큼, 추후에도 솟커버링 및 BM 지수를 추종하기 위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 자체는 상존. 그러나 하루 만에 양 시장이 역대급 폭등세를 연출했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단기 차익실현 물량으로 인한 일중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과도한 추격 매수는 지양할 필요.

또 다른 고민은 공매도 금지 첫날이다 보니 이차전지 대장주 뿐만 아니라 여타 이차전지주들까지 동반 급등했지만, 그 여파로 해당 업종에서는 상당부분 솟커버링 모멘텀이 소진 됐을 수 있다는 것. 이제는 거래소의 공매도 통계를 통해 개별 종목 및 업종에 대한 공매도 잔고 데이터를 체크하는 작업이 필요. 그렇지만 T+2 일에 T 일의 데이터가 확인이 되는 거래소 공매도 통계 특성 상, 6 일(월)자 공매도 잔고 금액 변화는 8 일(수) 장 마감 후에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 이를 고려 시 금일에는 바이오, 게임, 중국 소비 테마 등 이차전지와 함께 기존에 공매도 잔고가 많이 누적됐던 업종을 중심으로 수급 스토리가 형성될 수 있음. 다만, 상기 언급했듯이 전일 폭등세가 과도했다는 측면이 있는 만큼, 해당 업종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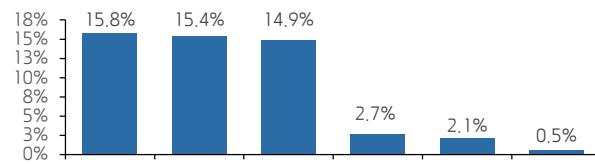
이상의 내용을 고려 시 금일 국내 증시는 매크로 상 미국 국채 입찰, 연준 인사들 발언에 대한 대기심리가 상존하는 가운데, 단기 차익실현 물량 vs 추격 매수세 등 공매도 금지가 만들어낸 수급 테마에 영향을 받으면서 장중 주가 변동성 확대 국면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

## KOSPI &amp;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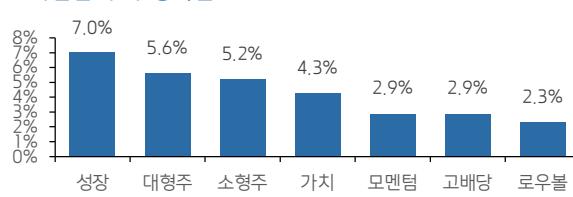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